

실패자가 승리자로 사는 길

정리 : 권은희
2022년 7월 17일 주일 설교 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눅5:3) 이른 아침 갈릴리호숫가에 계시던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 인파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들이 생기자 예수님께서서는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날,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으로 살았던 그에게 ‘베드로(반석)’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요 1:35~42) 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눅 4:38~39) 그렇게 안면이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운집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고기잡이는 낮이 아닌 밤에 그물을 던져야 많이 잡을 수 있고, 이미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상태였으며, 그물을 던져 잡는 물고기는 낮은 곳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막 밤새 사용한 그물을 씻고 수선했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일은 너무 번거롭고, 베드로와 일행은 이미 지쳐 있었으며,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할 핑계는 얼마든지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이라면 ‘아멘’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할 이 많은 이유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잠시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덕분에 베드로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은 안될 것 같지만 말씀을 들으니 기대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비전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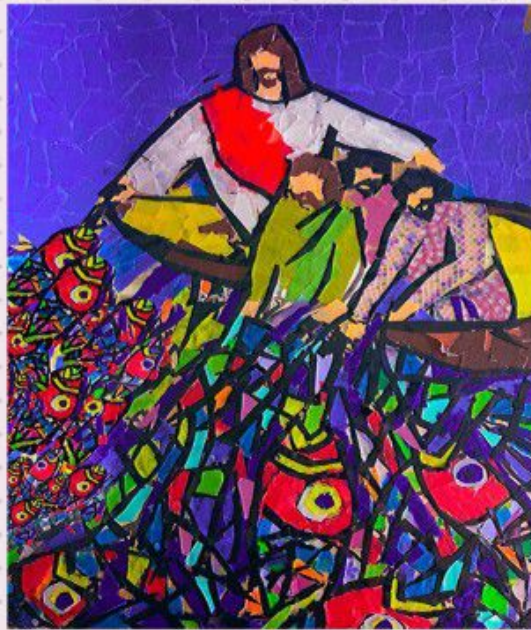
베드로와 같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온 맘과 힘을 쏟아 어떤 일들을 준비해왔는데도 인생의 빈 그물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왔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물을 끌어 올려야만 했고 그 물고기는 두 배에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라 불렀던 예수님을 ‘주(主)’로 바꾸어 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영적 파탄에 빠진 죄인일 뿐임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거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잊는 순간, 그 초심을 잃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쉽게 동화되면서도 화합하지 않는다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으면서도 이웃과 어울릴 줄 알고, 쉬운 사람은 쉽게 홀리면서도 이웃과는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성도입니까 쉬운 성도입니까? 착한 성도는 그 심지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쉬운 성도는 심지가 교만한 자기 생각에 있으니 자기감정과 환경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쉬운 사람이 아닌 착한 사람이 됩시다. 쉬운 성도가 아닌 하나님께 심지를 내린 착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의
묵된 사진관

레이아웃: Ruby Sin

향기로운 예물

십일조

김제환 세부부부 유지혜 정하늘 정윤범(이혜경)

감사

김제환 김정겸(도지안) 김효진 라혜성 손승연 솔하늘빛나 이원호 이장우 이주성 전연실(이지아) 하음이네 무명

선교

김제환 밀크 의정부지오네 정효철

건축

김제환 손승연

청소년 모임 보고

반 (교사)	출석	성경	전도
-	-	-	-
-	-	-	-
총계	-	-	-

목장 모임 보고

목장	작은목자	인원 성명	전도
1	서희경 사모	-	-



세부광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측)에
 속한 교회로 2013년 3월 3일
 한인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필리핀 세부에 설립되었습니다.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측)

교단 주요 교회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

담임 목사
 김제한 목사
chriskjh7991@gmail.com
 0916-319-1863

TALK cebulight

1. 세부광명교회[공식 채널]

2. 리마인드 3분 메시지

www.lightcebu.org

세부 광명교회(cebu99)

cebulight_ch

세부광명교회

교회 약도



3F, RCDC Bldg, Gov. M. Cuemco Avenue



예배 순서

1부 : 오전 11시
 예배 인도 : 김제한 목사

- 신앙 고백
- 찬양과 경배
- 합심기도
- 성경 본문
- 설교
- 기도
- 봉헌
- 광고
- 파송 찬양
- 봉헌 기도 & 축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 주와 같이 갈 가는 것
 십자가 / 은혜

누가복음 5:27~32 (신약 p.97)

“찾아가시는 예수님” - 예수를 만난 사람들(2)

성령이 오셨네

성자의 귀한 몸

우리에게 소원이

새벽 기도회 & 금요 기도회 안내

성령님과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 & 주간 QT 본문] / 새벽 5시(월~금)

7/25(월)	7/26(화)	7/27(수)	7/28(목)	7/29(금)
마태 5:27-32	마태 5:33-37	마태 5:38-42	마태 5:43-48	마태 6:1-4

산을 옮기는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저녁 8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 강해_04)

2022년 7월 예배 봉사 위원

일자	예배 안내	헌금 위원	식사 봉사
7/3~31	이정은 집사	손승연 집사	여성 목장

공동체 소식

1. [우리 한글 교실] 교사 모집

- 8월 개강 예정인 한글 교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 12주간 토요일 오전 수업 예정
- 유치, 초등부 지도 예정
- 문의 : 권은희 집사

2. [세부한인교회연합회 : 세교연] 목회자 수련회

- 기간 : 7월 25일(월)~26일(화)

3. [새벽 기도회] 안내

- 7월 26일(화) 새벽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합니다.
- 월, 수, 목, 금 새벽 기도회는 기존대로 새벽 5시에 진행합니다.

예배 시간 안내

예배 & 기도회	시간	모임 & 성경공부	시간
주일 예배	(1부) 오전 11시	목장 모임	매주 목요일
어린이 예배	(주일) 오전 11시	새가족 성경 공부	연중 개강
청소년 예배	-	일대일 제자반	연중 개강
새벽 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우리한글교실	연중 개강
금요 기도회	(금) 저녁 8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1. 탈북자 선교 : Stephen Jung 선교사
2. 세부카하약교회 : 허영희 선교사